

교환학생 보고서

무용원 실기와 최예원

2018 년 2 학기 SUNY Purchase 교환학생



저는 2018 년 2 학기 뉴욕 동부에 있는 SUNY Purchase 학교에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. 캠퍼스가 없는 서초동 한국예술종합학교와는 달리 이 학교는 캠퍼스가 너무 커서 처음엔 당황하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. 처음 학교에 도착해서 교환학생들 다 함께 생활 용품을 사러 마트에 다녀왔습니다. 그 후 일주일동안은 아침일찍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영어 수업 분반을 위해서 영어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.



SUNY Purchase 학교의 커리큘럼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매우 비슷합니다. 마사 그라함, 머스 커닝햄 테크닉도 필수로 듣고 발레도 최소 일주일에 3 번은 들어야 하며 한 학기마다 정기공연이 있어 공연연습을 하며 친구들과도 더 가까워지고 한국에서 배울 수 없는 새로운 스타일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. 또 이 곳의 Dance Building 은 새벽 2 시까지 열려 있어 스튜디오가 빌때는 언제든지 와서 개인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.



학교 끝난 후나 주말에는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파티를 하기도 하고 시내인 White Plains 나 Manhattan 에 나가 놀며 여러 공연들도 봤습니다. Thanks giving day 방학때는 친구들과 LA 로 여행도 다녀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

저는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문화와 언어를 배웠고 춤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. 4 개월 동안 미국이란 나라에서 지내면서 영어가 많이 늘었지만 그 전에 더 공부를 해 왔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. 내년엔 올 후배들에게는 꼭 최선을 다해 영어공부를 해서 교환학생을 가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.